

‘출시 3년’ 5G 요금경쟁 불붙는다…트리거 당긴 SKT

경쟁 신호탄 쏜 SKT, 8GB·24GB 구간 요금제 첫 선 KT·LGU+도 준비…‘파격’ 선보이면 SKT 후속 조치 50GB 이상 구간 세분화 필요성 제기…정부 “공감”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가 출시 3년여 만에 변화를 맞는다. 그간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가 주를 이뤘는데, 앞으로 6만원 이하 요금제 사용자도 많아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다음달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예고하면서다.

포문을 SK텔레콤이 열었다. SK텔레콤은 5종의 신규 요금제 출시를 확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대응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자칫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하향화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5G 가입자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쟁적인 상품 출시가 예상된다.

7월3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요금제 5종을 수리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개편된 5G 요금제 상품들을 팔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는 일반 3종과 온라인 전용(언택트) 2종 등 총 5가지다. 일반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8GB(소진 시 최대 400Kbps)를 제공하는 ‘베이직’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소진 시 최대 1Mbps)를 제공하는 ‘베이직플러스’ ▲월 9만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5GX 프라이플러스’다.

언택트 요금제는 ▲월 3만4000원에 데이터 8GB(소진 시 최대 400Kbps)를 제공하는 ‘5G 언택트34’ ▲월 4만2000원에 데이터 24GB(소진 시 최대 1Mbps)를 제공하는 ‘5G 언택트42’다.

이에 더해 SK텔레콤은 기존 월 5만5000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10GB를 제공했는데 1GB를 추가, 매월 11GB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요금제가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데이터 8GB 이하 이용자는 기존 대비 월 6000원, 11~24GB 사이 이용자는 월 1만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K텔레콤의 요금제 출시가 확실시 되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신규 5G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양사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는 구성안을 확정하면 즉시 가능하다. 후발주자로 나선 만큼 보다 경쟁적인 구성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요금제 출시로 이동3사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요금제 출시 진행 과정을 보면 요금제 구간 설정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등 통상적으로 경쟁이 있었던 만큼 KT와 LG유플러스가 다양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앞서 2019년 첫 5G 요금제를 두고 경쟁했다. KT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확정된 요금제를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번에도 KT와 LG유플러스가 보다 파격적인 조건의 데이터 제공이나 요금 수준을 설정할 경우 SK텔레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요금제를 수정할 수도 있다. 5G 중간요금제 출시로 LTE보다 요금제 구성이 다양해지는 데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들도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5G를 이용할 수 있어 가입자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요금제 개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0~100GB



구간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것. 100GB 이하에서 24GB 요금제 하나 만으로는 중간요금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이에 공감하며 이동3사와 논의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홍 실장은 “중량 구간으로 24GB 요금제가 나왔지만 앞으로 요금제가 더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중량 구간을 더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는 5G 커버리지 현황, 통신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 단말기 보급 현황 및 가격, 5G 가입자 현황 등을 고려해 이통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와 조율해 10~110GB에서 구간별 요금제 상품을 내도록 유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5~100GB 사이 데이터 이용자는 현재의 6만9000원 요금제나 무제한 요금제를 무조건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돼 중간요금제 도입의 취치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5G요금제 개편의 속내…LTE 가입자 흡수 노렸다

8GB·24GB 구간 신설…LTE·5G 데이터 사용량 평균 수준 LTE 요금제도 이원화돼 있어…5G 전환 가속화 역할 알뜰폰 5G 요금제 다양화 기여…SKT, 도매제공 약속

5G 요금제 구성이 한층 촘촘해진다. 그동안에는 데이터 10GB와 110GB로 데이터 간극이 컸는데 SK텔레콤이 먼저 8GB, 24GB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그 사이를 좁힌다. 이는 특히 LTE에도 없는 구성이라 LTE 가입자의 5G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와 함께 5G 보급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평균 데이터 사용량 고려…LTE 8GB·5G 24GB

7월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는 크게 데이터 8GB와 24GB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나뉜다.

우선 8GB의 경우 월 4만9000원의 일반 요금제와 월 3만4000원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 ‘5G 언택트 34’로 나온다. 2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월 5만9000원의 일반 ‘베이직플러스’와 월 4만2000원의 ‘5G 언택트 42’다.

SK텔레콤이 요금제 기준을 이처럼 설정한 것은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결과다. 24GB는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다. 상위 5% 이용자를 제외한 월평균 이용량은 18~21GB 수준이다. 8GB는 LTE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다.

정부는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이번 요금제가 데이터 소량·중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끌어 낼 것으로 평

< 5G 요금제 >

	8GB	11GB	24GB	110GB	200GB
일반	4만9000원	5만5000원	5만9000원	6만9000원	
언택트	3만4000원	-	4만2000원	-	5만2000원

가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데이터 선택권을 넓혔다는 차원에서 이용자 이익을 증진시켜 줄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자급제폰을 사용하는 이들은 언택트 요금제가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신비 부담 완화 역할…언택트 요금제 1년간 데이터 ‘더’

신설 24GB 요금제의 경우 월평균 11~24GB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일반 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110GB·6만9000원’ 요금제를 선택해야 했다. 앞으로는 ‘24GB·월 5만9000원’ 요금제를 통해 월 1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언택트 요금제에서도 마찬가지다. ‘200GB·5만2000원’을 써야 했는데 이제 ‘24GB·4만2000원’ 요금제로 요금을 아낄 수 있다.

8GB 이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들은 일반 요금제 기준, 월 5만5000원에서 월 4만9000원으로 이동해 6000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 언택트에서는 3만8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바뀌 매달 4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언택트 요금제를 선택하면 1년 동안 추가 데이터가 제공돼 요금 절감 효과가 더 크다.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언택트34 요금제에는 매월 7GB, 언택트42 요금제에는 16GB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각 15GB, 40GB까지 사용할 수 있다.

◆ LTE도 요금제도 이원화…중량 이용자 5G가 유리

신설 요금제는 LTE 이용자의 5G 전환에도 힘을 실어 준다. 현행 LTE 요

금제는 5G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제공량 간격이 크다. 월 6만9000원에 100GB를 제공하는 요금제 바로 아래가 월 5만원에 4GB 요금제다. 그 하단으로는 월 4만3000원에 2.5GB,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1.5GB다. 그 이상 요금제는 월 7만9000원에 150GB를 제공하고 데이터 무제한은 월 10만원 요금제를 써야 한다. 이에 중량의 데이터 사용자는 LTE보다 5G 요금제가 더 유리하다.

일단 기존 5G 10GB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있어 4~10GB 사이 데이터 이용자는 LTE보다 5G를 선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에 더해 8GB 요금제가 신설되면서 4~8GB 사이의 데이터 이용자는 매월 2만원을 아낄 수 있다. 11~24GB 구간 이용자라면 이번 5G 요금제를 통해 1만원을 줄일 수 있다.

홍 실장은 “5G 상용화 초기에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들이 5G로 이동했지만, 지금은 5G 시장이 성숙해 소량의 데이터를 쓰는 LTE 가입자도 이동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5G 중간요금제는 알뜰폰의 5G 가입자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400Kbps, 4만9000원, 24GB+1Mbps, 5만9000원)의 도매제공을 약속했다. 알뜰폰에서도 같은 구간의 5G 요금제 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홍 실장은 “알뜰폰에게는 (SK텔레콤) 온라인 요금제의 30% 할인된 수준의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품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